



보도시점 2025. 3. 10.(월) 배포 시 배포 2025. 3. 10.(월)

배추·무 공급 부족 물량 예상보다 많지 않고 수급상황은 점차 안정될 전망

- 겨울 저장배추 전수조사 결과 3~4월 출하될 저장물량은 전·평년 대비 3~5% 감소한 수준으로 가공업체 원료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
- 정부는 배추·무 공급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방출, 수입확대, 대체소비 유도 및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 등 대책을 적극 추진 중

< 주요 보도내용 >

3월 10일(월) 한국경제 「폭설·한파에 배추 생산 급감, 대상·CJ등 김치업체 ‘비상」 기사에서 ① “대부분 김치 업체가 국내산에 의존하는 현실 감안 시 원재료 수급위기가 지속될 경우 판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”, ② “배추·무 작황 부진은 지난 겨울 몰아닥친 폭설과 한파 등 이상기후 때문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>

① 3~4월 출하될 배추 저장량은 전·평년 대비 3~5% 감소한 수준으로 김치업체 원료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며, 정부는 배추·무 수급안정을 위해 공급확대 및 차기작형 재배 확대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

겨울배추 작황부진으로 인해 당초 3~4월 출하물량은 15~20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‘대아청과’의 겨울 저장배추 전수조사 결과 3월 4일 기준 겨울 저장배추는 약 7만 7천톤으로 최근 3년 평균(8만 1천톤) 대비 5.3%, 전년(7만 9천톤) 대비 3.1% 감소하여 당초 예상보다 부족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아울러 정부는 겨울 배추·무의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, 계약재배 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 시장공급 확대, 할당관세 적용·정부 직수입 등을 통한 수입 확대, 할인지원 기간 연장(~4월) 및 대체품목 소비 유도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겨울배추 저장물량 및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 등을 고려할 때 김치공장 등 가공업체의 원재료 수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한편,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전망에 따르면 올해 봄 배추 재배면적은 전·평년 대비 약 4~7% 증가하고, 봄 무는 전·평년 대비 약 8~15% 증가하여 봄 작형 수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에 더해 정부는 봄 배추·무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대비 각 45%, 50%까지 확대하고, 계약농가에 모종 구입비, 약제비 등 자재 지원과 농협·산지유통인과의 정부 수매약정을 사전(3월)에 체결하는 등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② 겨울 배추·무 생산량 감소는 지난해 가을 고온·집중호우가 주 원인입니다.

올해 겨울 배추·무 생산량 감소는 올해 겨울철 폭설과 한파의 영향보다는 지난해 전남(해남, 진도 등), 제주 등 주산지 가을 파종·정식기 및 생육기(9~10월) 유례없는 고온과 집중호우로 인한 초기 생육피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도 내용은 사실과 일부 다릅니다.

담당 부서	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	책임자	과 장	정재환 (044-201-2231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욱 (044-201-2232)

